

목포시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본격화

2024년까지 44억원 투입
생활인프라 확충·주택 정비
5개 분야 15개 사업 추진



목포시 죽교동 샘골마을 전경.

목포시가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새뜰마을사업은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죽교동 샘골마을은 지난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오는 2024년까지 4년 동안 국·도비 35억원 등 총사업비 44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샘골마을(1-5동) 일원(2만7273㎡)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죽교동 샘골마을은 지리적 특성상 급경사지 골목길이 많은데 주민 고령화 뿐만 아니라 인구유출까지 많아 공폐가 32%에 이른다.

시는 이 같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워크숍을 11회 진행했고, 주민의견 수렴과 선진지 견학, 관련 부서 실무협의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마스터플랜 세부사업은 ▲기초생활인프라 확충(마을안길·위험지 정비, 안전시설 설치, 커뮤니티센터 조성) ▲주택정비(빈집정거,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수리지원) ▲휴먼케어 추진(교육돌봄, 안

전위생, 일자리 프로그램) ▲주민역량강화(마을가꾸기, 주민공동체 지원, 샘골문화프로그램 및 마을리더 교육) ▲기록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관리 모니터링 등 5개 분야 15개 사업이다.

목포시는 빈집이 많은 죽교동 샘골마을의 실정에 맞춰 마스터플랜 확정 전 우선순위 사업으로 공폐가를 철거해 마을 뒷밭과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이 개선된 생활여건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주택정비와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총괄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 2명, 기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휴먼케어,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 생활 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영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8일까지 마을지원단 모집

영광군이 오는 8일까지 공동체 마을지원단을 모집한다.

공동체 마을지원단은 지난 공모를 통해 모집된 30여 개 마을 공동체의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마을 방문을 통한 공동체 네트워크 및 현장 활동 지원, 마을 자원조사를 통한 DB구축, 모니터링, 회계(정산) 지원, 주민자치회 활동, 마을 활동 영상 제작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 소외된 이웃을 함께 돌보기, 마을 주변의 환경을 가꾸기,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 활동을 하며 마을 소득을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공동체이다. 영광군 홈페이지 고산·공고관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광=이종수 기자 jylee@kwangju.co.kr

진도군치매안심센터, 무료 치매진단검사

협력의사 위촉 매주 목요일 검사

진도군이 치매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진도군은 치매상담, 예방, 조기진단 등 통합적인 치매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를 위촉, 정밀하게 치매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는 지난 2018년 해남우리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치매환자의 원활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위촉 후 활동하고 있다.

무료 치매진단검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중증화 방지를 위해 1차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또 치매 조기 검진자 중 인지저하 증상 대상자들

에게 2차 치매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환자 등록되면 ▲치료비·조호 물품 지원 ▲치매환자가족 자조 모임 ▲치매 통합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진행을 막거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며 “어르신들은 치매 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 상담문의는 진도군 치매안심센터(061-540-6967), 임회분소(061-540-6388),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등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이 가능하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2023 굴포당제-고산 윤선도 선생 감사제'가 오는 5일 오전 10시 진도군 임회면 굴포마을에서 열린다. 윤고산 득과 고산사당. <진도군 제공>

진도서 고산 윤선도 은덕 기리는 '굴포당제' 열린다

정월 대보름날 5일

4개 마을주민 합동당제

갯벌 농토 만든 선생에 감사

정월 대보름날인 오는 5일 오전 10시, 진도군 임회면 굴포마을에서는 '2023 굴포당제-고산 윤선도 선생 감사제'가 열린다.

굴포당제는 보통 마을에서 열리는 당제와 달리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마을의 평안을 바라는 일반적인 동제 의식에 덧붙여 남도 인문학의 대가인 고산 윤선도 선생의 보은에 대한 '감사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이곳에서는 굴포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굴포 간척지를 중심에 두고 살아오고 있는 신동·백동·남선마을 주민들이 합동으로 당제를 지낸다.

4개 마을 주민들이 이처럼 '고산 윤선도 선생'에 대한 감사제를 지내는 이유에는 조선 갯벌 간척의 역사와 함께 한다.

조선 후기 해남 윤씨가에서는 바다 갯벌에 제방을 쌓아 농토를 만드는 해언전(海堰田) 개발에 집중했다. 1640년대 후반에 고산 선생은 진도 굴포로 들어와 높이 3m, 길이 380m의 방축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토가 부족했던 농민들은 간척지를 불하받아 '고품질 갯벌밭'을 생산하며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었다. 굴포 간척으로 농민들이 새롭게 유입되면서 '신동' 마을이 형성되기도 했다.

해남 윤씨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에는 '굴포전답곡기(窟浦田畜穀記)'와 같은 추수기(秋收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굴포에서 농사를 짓던 강씨 등이 소작료가 비싸다며 탄원한 '소작쟁의'가 기록돼 있기도 하다.

고산 선생이 10살 때인 1596년 굴포에서 소작료를 받아간 기록에는 굴포만 간척사업은 그의 조부인 윤의중(1524-1590) 때부터 시작해 1640년 후반에 고산 선생이 완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산 선생은 1640년대 후반 득을 완성하고

1674년에 세상을 떠났으나 굴포마을을 비롯한 4개마을 주민들은 적어도 350여 년 동안 감사제를 열며 선생의 은덕을 기리고 있다.

고산사에서 치르는 당제는 '고산 감사제'라 불린다. 굴포·신동·백동·남선 등 4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고산 윤선도 선생의 은덕을 기리고, 4개 마을의 평화와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한다.

당제가 끝나면 4개 마을 주민들과 풍물패, 굴포당제에 참여한 인사들이 한 데 모여 음복과 덕담을 나누며 뒤돌아보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4개 마을 대표단은 올해 굴포당제-고산 윤선도 선생 감사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굴포신동백동남선마을발전협의회'를 창립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는 향후 마을생활환경 개선, 어항개발, 농업수리시설 확충, 용등초등학교 활용 마을소득화사업 추진, 고산 선생 유적 문화재 추진 등 공동체 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기자 노트

섬 주민들의 아름다운 기부행렬



이상선 서부취재본부 부국장

'기부'라고하면 으레 큰 기업이나 도시의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가 쉽다. 하지만 이런 개념은 이제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과 부유층의 기부는 감소하는 반면 저소득층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기부하는 이른바 '천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진행되면서 섬사람들까지 기부행렬에 나선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감명을 받아서이다.

기부문화가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제 섬 주민과 농어촌주민까지 릴레이 기부를 하면서 기부문화가 진화되어 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경제까지 어려워진 국면에서 장애인 농민과 어민, 고령자까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고향사랑을 위한 기부의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하는 모습은 참으로 좋다.

그 주인공이 바로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의 섬 주민들이어서 더욱 특별하다.

섬이란 곳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민으로 산다는 것이 태풍으로 양식장이 파손되거나 사라져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기십상이고 생활이란 게 그 자체로 고난인 소외된 삶이다.

농민 역시 육지와 달리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한 가뭄 땀 고사하는 농작물을 보면서도 하늘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생활자세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진행되면서 섬사람들까지 기부행렬에 나선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감명을 받아서이다.

최근 기부에 나선 한 주민은 "여유로울 때 기부는 보편적 나눔이고 어려울 때의 기부는 필요적 도움이라 어려울 때 기부의 보람이 더 크다"라고 말했다. 미소가 절로 나는 말이다.

이제 기부는 여유 있는 자들의 포지션을 넘었다. 진정한 기부는 부족함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어려움 속에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의 관심이 필요로 할 때 그 곳에 함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sslee@kwangju.co.kr

신안군 청렴도 한 등급 상승 3등급

국민권익위 2022년 종합평가

신안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등급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2002년 도입된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50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민원처리 경험에 있는 국민, 소속 직원이 응답한 부패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실적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한 결과이다.

신안군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는데 외부채감도에서는 90점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평균 대비 4.9점 높았으며, 내부채감도는 59.6점으로 전국 군 평균 대비 1.0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 새로 신설된 평가 항목인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전국 군 대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반부패 추진계획수립과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등 부족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청렴도 평가 상승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신안' 구현을 위해 청렴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무안군, 버스 환승할인제 시행...전 노선 환승

학생 100원 요금 교통카드만 가능

무안군이 2월부터 버스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초·중·고교생 100원 버스 요금제 결제수단을 변경한다.

지난달 16일부터 시범 운행한 환승시스템은 안전성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점검을 마쳐 무안군 농어촌버스·좌석버스, 공공형버스(50번, 55번) 전 노선은 환승이 가능하게 됐다.

환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야 하며, 단말기 태그 1시간 이내 환승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환승 가능하며, 동일 노선으로의 환

승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향후, 목포시내버스 정상 운행 시에는 목포시내버스와의 광역환승도 이루어 질 예정이다.

또 지난 해 8월 11일부터 시행됐던 학생 100원 버스요금 혜택은 교통카드와 현금 모두 이용 가능했으나, 2월 부터는 교통카드 사용 시에만 100원 버스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버스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군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에 한발자국 더 다가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중교통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시 시내버스 비상수송차량 12대 증차

중·고생 등교 통학 노선 신설

목포시가 비상수송차량 운행 전세버스(사진) 운행횟수를 증회하고 노선을 확대·운영한다.

시는 태원·유진 시내버스회사의 가스비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중단으로 운행하고 있는 비상수송차량을 2월부터 12대 증차한다고 밝혔다.

현재 11개 노선(1번, 1A번, 2번, 6번, 9번, 11번, 13번, 15번, 20번, 33번, 60번) 63대를 운행 중이며, 증차에 따라 75대를 운행하게 된다. 운행 횟수도 증회된다. 이용객이 많은 주요 5개

노선(1번, 1A번, 9번, 20번, 60번)은 배차간격을 단축해 증회 운행하며, 정류장 정차 정시성 준수를 위해 운행시간표를 개선한다.

2-1번 노선은 신설된다. 학생 등학교 이동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옥암·부주·항도여중·영흥중·정명여중·목포여중을 경유하게 된다.

용해지구-동부시장-고하도를 운행하고 있는 33번 노선은 연장된다. 용해지구에서 신항만-현대상호아파트까지 운행돼 신항만과 현대상호아파트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 수요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